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최지우 3년만에 브리운관 복귀

한류스타 최지우가 SBS '천국의 계단' 이후 3년 만에 브라운관에 돌아온다.

최지우는 5~6월께 MBC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로 방송될 예정인 '에어시티'(극본 이선희, 연출 임태우)에서 5개월에 걸쳐 출연해 능통한 정도로 유능하지만 평坦치 않은 가족사로 상처를 입은 공항공사 운영처 실장 한도경 역을 맡았다.



공동제작자 HB엔터테인먼트는 "겉으로는 냉철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주인공에 최지우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을 초 활용해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시티'는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미야 밀수와 여권위조 등 각종 사건을 그리며 남자 주인공에는 이정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년 드라마 격돌'
방송 3사가 새로운 드라마를 일제히 선보이며 '드라마 명가'를 꿈꾸고 있다. 지난 해 '소문난 칠공주' 등으로 방송 3사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KBS, '주몽·궁' 등으로 '드라마 왕국'의 명성을 조금씩 회복한 MBC, '하늘이 시여·사랑과 애망' 등 주말 드라마에서 강세를 보였던 SBS의 신작 리스트를 소개한다.

▲'주몽'의 이성을 넘어라
월화드라마는 시청률 40%를 넘나드는 '주몽'이라는 거대한 산에 가로 막혀 SBS와 KBS 모두 지난 한해 참패를 거듭했던 시간이다. 8일 방송되는 KBS의 '꽃피는 봄이 오면' 검사를 꿈꾸는 만년 고시생의 인생 역전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건혁과 이하나·박시연이 주연을 맡았다.

MBC는 1주일 늦은 10일 '궁'을 선보인다. 가수에서 변신을 시도한 세븐과 하이재·강두·박신혜 등 신인들이 대거 캐스팅된 '궁'은 자신이 황실의 후손임을 모르고 살던 중국집 배달부가 영겁결에 황위계승 서열 1위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SBS는 17일 '외과의사 봉달희'로 시청자를 만난다. 영화배우 이범수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안방 나들이를 하며 이요원이 타이틀을 맡았다.

▲'눈꽃'의 뒤통수를 차지하라
SBS의 '시랑하는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다섯 남매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 한은정·김동완·홍경민·박은혜 등이 출연한다.

▲'비데랑 VS 신인'
MBC와 KBS는 주말드라마와 일일드라마에서 맞붙어야 할 운명. 반격을 노리는 MBC는 최진실과 강수연이라는 연륜있는 연기자를, KBS는 한효주와 윤정희라는 신인탤런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문난 칠공주'로 주말 안방극장을 독차지한 KBS는 6일부터 후속 드라마 '행복한

여자'를 내보낸다. 초보형사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하늘이 시여'의 윤정희와 김석훈이 주연을 맡았다.

MBC는 주말연속극 '누니' 후속작으로 2월 강수연 주연의 '둔희'를 선보인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자식을 떠나보내게 되는 등 파란 많은 삶을 겪으며 복수를 꿈꾸는 여성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일일연속극 '나쁜 여자 착한 여자'는 최진실의 복귀작. 전업주부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겪게 되는 혼란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이제룡, 성현아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KBS는 15일부터 한효주·박해진 주연의 '하늘 만큼 땅 만큼'을 방영한다.

그밖에 2001년 마야 과문으로 6년간 밭이 끊어있었던 황수정의 복귀작인 SBS의 '소금인형'(12일), 5년만에 돌아온 이미연과 윤계상이 호흡을 맞춘 SBS의 '사랑에 미치다'(2월 3일)도 관심을 모으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년드라마 붙어 보자"

최지우 3년만에 브리운관 복귀

한류스타 최지우가 SBS '천국의 계단' 이후 3년 만에 브라운관에 돌아온다.

최지우는 5~6월께 MBC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로 방송될 예정인 '에어시티'(극본 이선희, 연출 임태우)에서 5개월에 걸쳐 출연해 능통한 정도로 유능하지만 평坦치 않은 가족사로 상처를 입은 공항공사 운영처 실장 한도경 역을 맡았다.

공동제작자 HB엔터테인먼트는 "겉으로는 냉철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주인공에 최지우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을 초 활용해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시티'는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미야 밀수와 여권위조 등 각종 사건을 그리며 남자 주인공에는 이정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년 드라마 격돌'

방송 3사가 새로운 드라마를 일제히 선보이며 '드라마 명가'를 꿈꾸고 있다. 지난 해 '소문난 칠공주' 등으로 방송 3사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KBS, '주몽·궁' 등으로 '드라마 왕국'의 명성을 조금씩 회복한 MBC, '하늘이 시여·사랑과 애망' 등 주말 드라마에서 강세를 보였던 SBS의 신작 리스트를 소개한다.

▲'주몽'의 이성을 넘어라
월화드라마는 시청률 40%를 넘나드는 '주몽'이라는 거대한 산에 가로 막혀 SBS와 KBS 모두 지난 한해 참패를 거듭했던 시간이다. 8일 방송되는 KBS의 '꽃피는 봄이 오면' 검사를 꿈꾸는 만년 고시생의 인생 역전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건혁과 이하나·박시연이 주연을 맡았다.

MBC는 1주일 늦은 10일 '궁'을 선보인다. 가수에서 변신을 시도한 세븐과 하이재·강두·박신혜 등 신인들이 대거 캐스팅된 '궁'은 자신이 황실의 후손임을 모르고 살던 중국집 배달부가 영겁결에 황위계승 서열 1위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SBS는 17일 '외과의사 봉달희'로 시청자를 만난다. 영화배우 이범수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안방 나들이를 하며 이요원이 타이틀을 맡았다.

▲'눈꽃'의 뒤통수를 차지하라
SBS의 '시랑하는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다섯 남매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 한은정·김동완·홍경민·박은혜 등이 출연한다.

▲'비데랑 VS 신인'
MBC와 KBS는 주말드라마와 일일드라마에서 맞붙어야 할 운명. 반격을 노리는 MBC는 최진실과 강수연이라는 연륜있는 연기자를, KBS는 한효주와 윤정희라는 신인탤런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문난 칠공주'로 주말 안방극장을 독차지한 KBS는 6일부터 후속 드라마 '행복한

여자'를 내보낸다. 초보형사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하늘이 시여'의 윤정희와 김석훈이 주연을 맡았다.

MBC는 주말연속극 '누니' 후속작으로 2월 강수연 주연의 '둔희'를 선보인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자식을 떠나보내게 되는 등 파란 많은 삶을 겪으며 복수를 꿈꾸는 여성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일일연속극 '나쁜 여자 착한 여자'는 최진실의 복귀작. 전업주부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겪게 되는 혼란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이제룡, 성현아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KBS는 15일부터 한효주·박해진 주연의 '하늘 만큼 땅 만큼'을 방영한다.

그밖에 2001년 마야 과문으로 6년간 밭이 끊어있었던 황수정의 복귀작인 SBS의 '소금인형'(12일), 5년만에 돌아온 이미연과 윤계상이 호흡을 맞춘 SBS의 '사랑에 미치다'(2월 3일)도 관심을 모으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노래하는 순간 순간 가슴 벅차요"

솔로 데뷔 브라이언

▲'미국에 계신 어머니(연령순·53)가 18살 때 국내에서 솔로 음반을 내고 예명으로 활동하셨어요. 언젠가 청소하다 어머니의 레코드판을 웃장에서 발견했는데 '애~ 창피해'라며 감추시더군요."

부모 몰래 미국에서 오디션에 도전, SM 엔터테인먼트에 발탁됐고 1999년부터 플레이터너스카이(한희·브라이언)란 팀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브라이언(본명 주민규·26)이 솔로로 데뷔했다.

"어린 시절 꿈을 이루는 익스피어리언

스(Experience)를 누구나 갖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만도 순간 순간 가슴이 벅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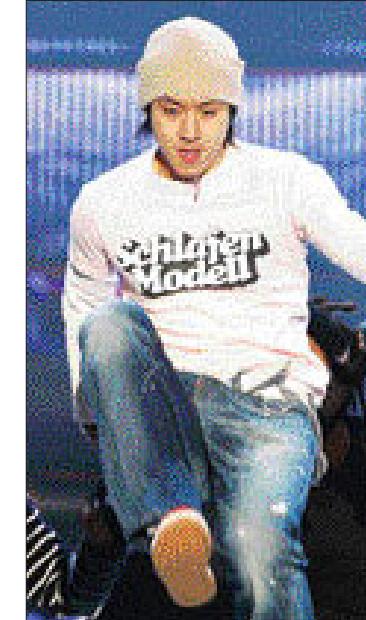
브라이언은 미국 LA 태생으로 뉴욕·뉴저지 등지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년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 한국말을 해야 한다'며 때로 다스렸고 덕분에 그는 매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고 현재 각종 쇼프로그래프를 종횡무진하고 있다.

"친구들이 이젠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에선 솔직히 다음 날 맥주와 피자로 해장했는데 지금은 선지해 장국을 먹거든요(웃음)."

솔로 1집 '더 브라이언'은 플레이터너스 카이 때의 음악에서 기를 기울 쭍겼다.

"솔로 음악은 타이틀곡 '가지마'를 비롯해 '일년을 겨울에 살아' 등 어쿠스틱한 느낌의 팝 발라드가 주를 이룹니다. 플레이터너스카이 음악이 크립소스 스파게티면 솔로 곡들은 고소한 김치볶음밥이죠."

그는 짹꿍 환희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했다. "우린 형제 같다"며 "언젠가 '우리가 게이(Gay)'란 말이 돌더다. 그래서 일부러 티격태격한 적도 있다. 4월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늘 고맙다"고 말했다.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 대리기사 이야기!

▲'060-700-3658'은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 대리기사 이야기!

060-700-3658은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 대리기사 이야기!